

한국 산지촌의 실태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I)

- 강원 남부지역의 산지촌을 사례로 한 경관생태학적 접근 -

김일기* · 이민부* · 박승규** · 전종한**

Geocological Situation and Promotion of Mountain Settlements in Korea (I)

Il-Ki Kim* · Min-Boo Lee* · Seung-Kyu Park** · Jong-Han Jeon**

요약 : 이 글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방식도 다양하지 못했던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지역을 세분하고 이 틀속에서 산지촌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지촌들이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경관, 사면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그리고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본 후, 자연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생태지역별 자연경관 및 생활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생태지역,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lassify and compare the mountain settlements of study area through historical, geographical, and geocological approaches. The main conceptions of this paper are landschaftsoecologie(landscape ecology) and ecological region(ecoregion). On the basis of these conceptions, the authors are to classify the study region into three ecoregions. And then location of settlements, way of life, human landscapes, socio-economic conditions, environmental problems in mountain settlements of study area a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three types of ecoregions are recognized. The first of the types is the mountain settlements of high/flat region. The second is the mountain settlements of high intermontane region. The third is the mountain settlements of slip-face intermontane region.

These three typ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location of settlements, way of life, physical landscape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problems. For example, these ecoregions have different physical landscapes in slope, topography, and soil condition though they have the similar condition of high mountains. The settlement distribution of the first is more sparse than second or third ones. Social relations of the second is stronger than those of other types. Those of first or third types are fragile. Economic conditions of the third is inferior to the case of the first or second, and so on.

The perception of these different features are important because these become the groundworks to promote mountain settlements by its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In the next series of mountain region research, authors will focus on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mountain settlements on the basis of these actual conditions of three types of mountain settlements.

Key Words : ecoregion, high flat region, high intermontane region, slip-face intermontane region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N.U.E.)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N.U.E.)

1.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山地村은 산지 지역에 위치한 취락으로서 고유한 存在樣式 또는 生活樣式과 文化景觀을 가진다. 자연 환경 및 인간 거주지로서의 측면에서 산지 지역의 生態·地理的 特性은 전세계적으로도 공통점이 많다(Groetzbach, E. F., 1988). 외국의 경우 산지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¹⁾

이에 비해, 한국의 촌락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農·漁村 등의 一般村落과 기지촌·寺下村 등 特殊村落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山地村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산지촌 연구들에서는 산지촌의 내적 차별성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존재양식에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산지촌에 내적 差別性이 존재한다고 함은 곧 산지촌을 유형별로 나눌 수 있음을 뜻하며, 산지촌의 내적 차별성의 규명과 이에 따른 산지촌의 유형화는 산지촌의 振興方案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 방법은 특정한 시간 단면에 한정하거나 장소간 공간적 차별성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분석 자료의 경우 현재적 기능 혹은 특정한 시간 단면상에서 추출하거나, 현지 답사를 통한 원자료(raw data)보다는 2차 자료인 통계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산지촌의 발생요인 및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산지촌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각각의 존립방식과 구조적 특색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의 촌락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형 분류의 측면에서 대체로 形態(form)와 機能(function)에 기초한 연구로 大分할 수 있다. 촌락의 구성 요소, 입지, 분포패턴, 가옥의 밀집 정도, 가옥구조, 건축재료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전자이고, 어촌, 농촌, 과원취락, 관광촌, 화전촌 등 촌락의 기능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후자이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시공간 상에서 촌락의

展開過程(process)을 추구하는 방법론과 특정한 時空間 斷面上에서 分布原理 혹은 機能原理(principle)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론에 비추어 볼때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전자의 경우 특정한 유형의 촌락만이 분포하고 있는 제한된 소규모 스케일의 영역을 연구 지역으로 하거나, 후자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전국적인 규모의 지역 스케일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종종 중규모 지역 스케일의 지역을 채택한 경우에 더 나은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최기엽, 1986; 이문중, 1987; 김일기, 1988; 옥한석, 1994).

중규모 지역에서는 촌락의 전개과정 및 지리적 특성과 같은 촌락의 세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촌락의 특성별·유형별 지역 구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촌락이 갖는 지리적 현상을 거시적인 동시에 미시적인 두 개의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도 중규모 지역 접근법을 채택하여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는 태백산맥 일대를 사례 지역으로 하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강원 남부지역을 선택하였다. 이에 속하는 행정구역은 대관령 이남의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철 명주군 포함), 그리고 정선군의 일부이다(그림 1).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지촌의 형성 과정의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촌락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산지촌의 지역적 차별성의 측면에서 유형별로 산지촌의 立地, 生態的 條件, 生活方式, 景觀 등을 기술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론 : 景觀生態學과 生態地域

聚落景觀은 주어진 환경²⁾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인간의 제행태는 주어진 환경에 最適化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Sauer, C. O., 1956). 최적화된 인간의 행태, 즉 인간이 환경에 適應(adaptation)한 결과는 景觀(Landschaft)에 반영된다. 따라서 경관에는 인간의 적응 전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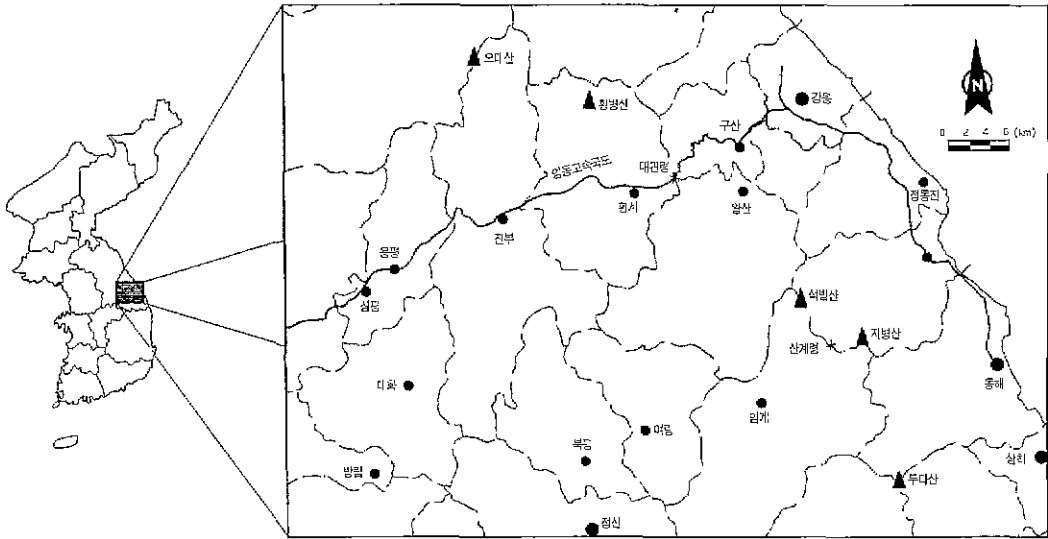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adaptational strategies)이 내재된다. 결국 일정한 지역의 경관(Landschaft)이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이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를 통해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지역의 경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관계들에 토대를 두는 地域的 特性(regional characteristics)을 밝힐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의 경관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景觀生態學(landscapeecology)³⁾이라는 분야로 발전해 왔다.⁴⁾ 경관생태학의 창시자인 칼 트롤(Carl Troll)에 따르면 경관이란 지형과 토양, 수문학과 식생, 그리고 지질과 지형 등 환경을 구성하는 제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적 연계성(ecological linkages)에서 비롯된 산물이다(Troll, C., 1988). 칼 트롤에게 있어 연구의 시발점이 된 것은 식생으로서, 그는 식생을 요소간 제관계의 표현물로 인식하고 장소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식생 경관을 지표로 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생태학(landscapeecology)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 지역의 산지촌을 세계의 지역권으로 분류한 후 각 지역권별로 산지촌의 立地, 生態的 條件, 生活方式,

景觀 등을 기술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이렇게 경관의 특색에 기초하여 구분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은 生態地帶(ecozone) 또는 生態地域(ecoregion)⁵⁾이라 명명될 수 있다. 생태지역(ecoregion) 개념은 원래 생태지대(ecozone) 개념에 어원을 둔다. 생태 지대란,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가 帶狀 패턴(zonal pattern)을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서 안데스 산지의 수직적 식생 분포 패턴을 연구한 칼 트롤에 의해 명명되었다. 그 후 이 용어는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인간생태학(Barrows, H. H., 1923), 문화생태학(Netting, R. M., 1977), 역사생태학(Bilsky, L. M., 1980)이나 최근의 '생태지리학(Ecogeography)'(Tricart, J. & C. Kiewietde Jonge, 1992) 역시 이러한 생태지대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적 환경은 항상 대상 패턴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특히 인간이 간섭하는 경우나 자연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도 생태적 환경의 분포 패턴에 구애받지 않는 생태지역(ecoregion)이라는 개념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경우 자연 및 인문 환경에 있어 동질한 경관을 보이는 일정한 범위의 산지촌 지역에

대해 '生態地域'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생태지역이란 본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地形環境, 斜面の 傾斜度, 海拔高度를 기준으로 生態地域을 구분하는 방식이 특정한 地域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전중환, 1993).

이러한 방법에 기초할 때 본 연구지역은 세 곳의 생태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평창군 북동부와 강릉시 남서부 일대에 걸쳐 펼쳐진 高位平坦面地域, 정선군 일대의 高位山間地域, 태백산맥 동사면인 동해 및 삼척 서부의 急斜面山間地域이 그것이다. 이들 생태지역은 본고에서 연구지역의 산지촌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2. 生態地域의 분류와 산지촌의 형성과정

1) 생태지역별 특색과 역사적 배경

연구지역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江原道 江陵市 旺山面과 玉溪面, 平昌郡 珍富面과 大和面, 旌善郡 臨溪面과 北面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태백산맥의 분수계를 사이에 두고 있음에도 역사적으로 생활권은 모두 강릉권에 속해 왔다. 이 지역은 남북으로 뻗어있는 태백산맥의 동사면 및 서사면에 걸쳐있는 지역들로서, 전통적으로 '강원도 오지의 산간 벽지'라 불리워 왔다.

대관령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이 지역을 답사해 보면, 우선 경지화된 구릉성 산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지역이 나타난다. 그 후 수 킬로미터를 지나면서 서쪽으로는 보다 높은 산자락과 깊은 산골짜기가, 그리고 동해쪽으로는 험하고 급한 경사지와 골짜기가 전개된다. 처음의 구릉지가 이른바 고위평탄면이라 불리는 지역으로서, 연구지역에 국한해 볼 때,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진부면 및 대화면에 해당한다. 두번째 서술한 산간지역이 정선군의 임계면과 북면에, 세번째의 급경사 산간지역은 강릉시 옥계면에 각각 해당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사례 지역에서는 경관상 서로 다른 세 개의 지역이 인식된다. 지형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등고선의 간격과 밀도는 그 지역의 사면 경사도와 해발고도, 지형 조건을 대변해 준다. 따라서 우선 등고선의 배치 상태를 분석 하면 생태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등고선 분석의 결과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지 답사를 통해 인문 경관을 관찰하여 그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생태지역 구분의 2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본고에서는 그림 4에서 파악가능한 지형 및 경사도, 해발고도를 중심으로 한 자연 경관과, 촌락의 분포패턴, 생활방식 등 경관의 특성 즉 경관상(landscape images)에 의거하여 이 세 개의 지역을 각각 高位平坦面地域, 高位山間地域, 그리고 急斜面山間地域이라 명명하였다. 이 일대의 산지촌은 이 세 지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 임계면 소재지 부근은 이러한 세 개의 생태지역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남서부 사면의 임계면과 북동부 사면의 강릉시 왕산면 사이에 위치한 삼당령은 태백산맥 동-서사면의 분수계이자 양 사면을 이어주는 길목이다. 삼당령(해발 680m)은 대관령(해발 832m)보다도 150여 미터나 낮은 고개로서 언제부터 이용되어 왔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동사면의 강릉과 서사면의 임계-정선-원주-서울을 연결하던 요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월군, 정선군을 포함한 남한강 상류지역 일부가 이미 신라 경덕왕 때부터 溟州(지금의 강릉)의 領縣으로 봉해졌었다는 사실(국립지리원, 1982)과 忠州府 소속이었던 평창군 일대가 고려시대에는 江陵部에 속했던 사실⁶⁾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삼당령 외에도 서사면의 임계면과 동사면의 강릉시 옥계면으로 이어주던 고개인 산계령⁷⁾이 있다. 그러나 길이 험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사람들의 이용빈도가 급감하였으며⁸⁾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그 흔적만을 찾아 볼 수 있을 뿐 이다.

연구지역이 비록 山間奧地이지만 전술한 바처럼 일찍이 고려시대 이래 驛路가 통과하였다. 당시의 역로는 『高麗史』 병지 역참조에서 그 노선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개성에서 남한강 水系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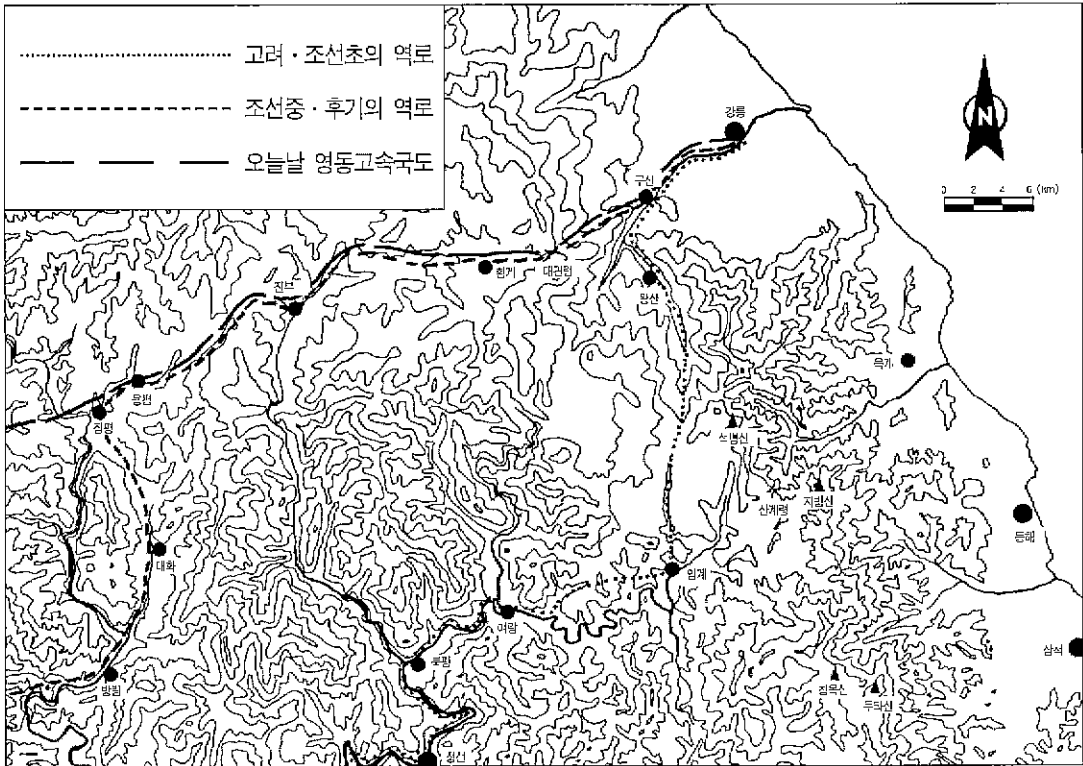


그림 2 간선 교통로 변천도 · 고려-조선-현재

원주-영월-정선-임계-삼당령을 거쳐 강릉에 도달한 노선이 있었다. 『增補文獻備考』와 『道路考』에 의하면, 그 후 조선시대에는 노선이 다소 바뀌어 기존 노선의 북서부를 통과하는 원주-안흥-방림-대화-진부-대관령-강릉 역로가 개척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영동고속도로는 원주-둔내-진부-대관령을 거쳐 강릉에 도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과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던 역로가 연구 지역을 관통했으므로, 초기에는 남한강 수계와 삼당령을, 그 후에는 원경사의 구릉지대와 대관령을,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짧은 노선으로서 둔내를 통과해 대관령을 넘는 노선으로 각각 변천해 왔다. 신라 및 고려시대의 경우, 남한강 수계를 따라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삼당령을 거쳐 강릉 동해안 지역에 이른 것은 生態環境에 최대한 순응하여 적응한 결과이며 당대의 토목 기술력의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조 이래로 서울과 강릉을 잇는 역로의 노선이 남한강 수계가 아닌 대관령을 넘는 陸路 중심으로 바뀌고

그 길이도 짧아지게 된 것은 郡縣制의 실시에서 비롯된 중앙집권화의 강화와 관계가 있고 生態環境에 대한 통제 능력의 향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역로 노선의 변천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지역 내에서의 촌락 형성은 정선-임계-삼당령 노선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일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임계 북서부의 안흥-방림-대화-진부 일대가 상대적으로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측은 역로상에 위치한 소도읍들을 연구하는데 적절할 수 있을 뿐, 기근이나 난리를 피해 오지의 산간지역에 들어가 형성된 산지촌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요인들, 특히 전쟁이나 기근, 정치적 혼란 등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 일대의 촌락을 연구하는 경우, 역로상에 발생한 역원취락의 형성과정과, 그 배후지로서의 산지촌의 형성과정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2) 산지촌의 형성과정

연구지역의 촌락의 형성 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驛院聚落이고 다른 하나는 火田聚落이다. 전자는 일종의 中心地로서의 기능지역이고, 후자는 산간 깊숙히 분포하고 있는 背後地로서의 산지촌이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촌락에 접근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촌락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우선, 『增補文獻備考』와 『道路考』에 기록된 역로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주요 驛院聚落으로는 정선-삼당령 노선 상의 北坪, 餘糧, 臨溪, 高丹, 邱井과, 원주-대관령 노선 위에 발생한 安興, 雲橋, 芳林, 大和, 珍富, 橫溪 등이다. 따라서 이들 문헌에 의거해 볼 때, 선술한 역원취락들의 발생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르고(신라·고려시대) 후술한 지역들이 다소 늦게 발생했다(조선 시대)고 분석된다. 당시의 역원취락은 사회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보다는 중앙의 행정·군사적 기능 혹은 관물수송, 세금 수취 기능이 컸을 것으로 이해된다.

17세기에 이미 우리나라의 평야지대에서는 농법개량 및 경작지 확대에 힘입어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잉여농산물이 발생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1991). 이런 면에서 보면 동시대에 주도된 '상평통보'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까지 소작농민이 부담하던 공물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시킨 대동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잉여 농산물을 분배하기 위한

적응책으로 정기시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정기시장의 발생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적어도 18세기에는 산간지역인 연구지역에까지 정기시장이 확장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 과거의 역원취락들은 定期市場의 개설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이래 정기시장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정기시장의 주요 발생지로서 주변 산지촌을 배후지로 한 社會經濟的 機能을 강화해 갔으리라 보여진다. 江陵市의 玉溪, 平昌郡의 平昌, 珍富, 大和, 蓬坪, 桂村, 美灘, 그리고 旌善郡의 旌善, 餘糧, 臨溪 등은 오늘날에도 개시되고 있는 주요 定期市場들이다.⁹⁾ 이들 정기시장들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곡물류와 약초류, 산나물, 산지부산물, 고랭지 야채류 등이며 주로 背後地인 산지촌에서 공급된다.

이들 소규모 취락들은 역원취락에서 출발하였다. 임계, 여량, 북평은 남한강 수계상에 발생한 역원취락이므로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진부와 대화는 조선시대 초중기 이후 원주-대관령 역로상에 발생한 역원취락이었다. 오늘날 이들 취락들은 오늘날 대부분 면소재지로 남아있다. 정선군 임계면의 임계, 북면의 여량, 북평면의 북평, 평창군 대화면의 대화, 진부면의 하진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면소재지로서의 행정적 성격 이외에는 별다른 사회경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배후의 산지촌에 대해서도 중심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반 기능이나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충족되

표 1 주요 정기시장 및 거래품목¹⁰⁾

정기시장명	개시일	주요 거래품목	정기시장명	개시일	주요 거래품목
평창군 대화장	4·9일	곡물, 약초, 산나물, 고추, 마늘	정선군 임계장	5·10일	마늘, 산나물, 곡물, 고추, 무, 배추
평창군 진부장	3·8일	곡물, 산나물, 버섯, 약초	정선군 여량장	1·6일	마늘, 산나물, 삼베, 고추, 무, 배추
평창군 봉평장	2·7일	곡물, 약초, 산나물, 산지부산물	정선군 동면장	3·8일	산나물
평창군 미탄장	1·6일	곡물, 약초, 산나물, 산지부산물	정선군 정선장	2·7일	고추, 마늘, 산나물
평창군 계촌장	2·7일	곡물, 약초, 산나물, 고추	정선군 북평장	4·9일	산지부산물, 곡물

자료 출처: 임계 정기시장 개시일 상인 및 소비자들과 면담

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에 주변 산지촌의 주민들은 군청 소재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강릉시나 원주시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지역일대의 인구감소와 경기 정체 및 쇠퇴를 불러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답사와 면담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의 2세대들은 대부분이 도회지로 진출한 상태였고, 연령이 많은 노인층만이 예전의 가옥과 경지와 함께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사항은 무엇보다도 교통편의와 의료시설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2세대들이 살고 있는 도시 생활에 합류하기를 꺼려한다. 무엇보다도 都市라는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접한 면소재지에서도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인접한 면소재지의 성취 여부가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는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산악지형이 발달하고 있는 연구지역은 개마고원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 火田地帶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구지역 일대는 한반도에서 화전민의 분포가 가장 밀집했던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화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화전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며 학자마다 그 주장도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1500년대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강릉대도호부 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1700년대 초 李彦煥이 『擇里志』에서 화전과 관련하여 연구지역 일대를 기술한 바 있듯이 이 지역에서의 화전과 화전취락은 적어도 전근대 시기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불을 놓아서 구름 속에 개간한다.”¹¹⁾

“태백산, 소백산도 또한 흙산이다. ... 이 산 위에 들이 열려 산 백성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화전을 만들어 살아간다. 그러나 지세가 높고 기후가 차서, 서리가 일찍 내리므로, 백성들이 오직 조와 보리만을 경작한다.”¹²⁾

화전이 시작된 요인에 관해서는 조동규(1966)에 의해 잘 정리된 바 있는데, 대체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항들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화전취락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불안정으로 도피하거나 은신하기 위하여 입산한 후 화전을 경작하는 경우. 둘째, 조정의 심한 부과금과 부역에 못견디어 산간 벽지를 찾게된 경우. 셋째,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 노일전쟁, 2차 세계대전 등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입산하였다가 정착하게 되는 경우. 넷째, 무주공산은 임의로 화입하여 경작하여도 관의 제재가 없을 뿐더러 과세부담이 전무하였다는 점. 다섯째, 평지농업에서 자금을 탕진하였다 하더라도 화전경작에 의하여 용이하게 넓은 경지면적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신규 화전은 대개의 경우 평지의 熟田보다 비옥하므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일곱째, 점유지의 지력이 소모되었다 할지라도 용이하게 타지역에 이주하여 넓은 토지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점. 여덟째, 평지생활에 비하여 경지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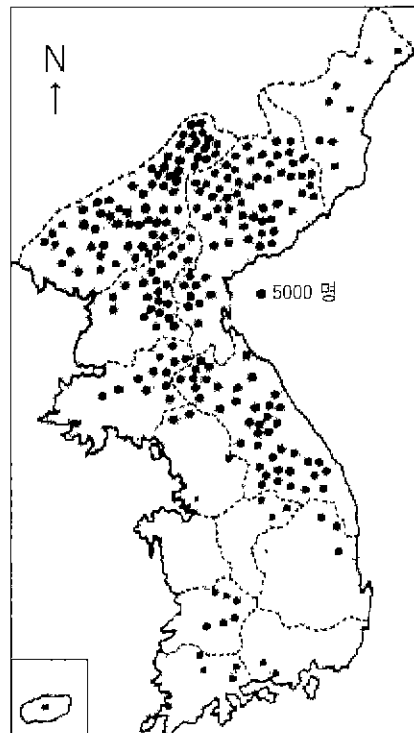


그림 3. 화전민 분포도

출처: 養生永助, 1926, 火田의現況, 調査資料, 15.

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빈곤한 자는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심산에 입산하여 화전을 경작하는 것이 평지농업보다 편안하다는 점, 아홉째, 유사종교에 현혹되어 천지개벽을 꿈꾸거나 혹은 鄭鑑錄을 신봉하게 된 자들이 산지로 모여들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이 화전취락의 형성은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과 불안을 피해 입산하는 경우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자유롭게 입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계 문제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랭지에 적합하고 이 일대의 주산물로 알려진 감자와 옥수수가 보급된 시기는 화전취락이 크게 擴大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1700년대에 보급된 감자는 조선 중기 이후 이 일대에서 화전취락이 확대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940년 현재 강원도의 화전면적은 78,054 町步로서 208,592 町步의 밭면적에 대비해 볼 때 25 : 75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강원도, 1976). 1945년 해방이 되면서도 화전은 지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을 기하여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64년에는 화전가구와 화전민이 각각 3만, 17만을 나타내었다(오홍석, 1989). 그 후 1966년에는 화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2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화전은 삼림으로 환원시키는 한편(강석오, 1971) 그 이하의 화전은 산전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정착농가의 출현과 더불어 화전농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3년의 화전 실태(강원도, 1976)에 의하면 강원도의 화전면적은 23,145 ha로 전국의 31%를 점유하고, 화전가구는 45,642호로서 전국의 22%를 차지하는 화전 밀집 지대로 나타났으며, 그 중 평창군과 정선군을 중심으로 한 내륙산간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오홍석, 1989).

오늘날, 연구지역에는 실제 화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빈곤 농가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화전농이라는 生活方式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각각 국가 정책적 요인, 경제구조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3. 生態地域別 산지촌의 변화 요인과 실태 분석

개개의 촌락생활 혹은 촌락사회는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이른바 국가 권력망의 말단부로 기능해 왔다. 국가의 제반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현실로서 표출됨으로써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촌락사회인 것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權力網 속에서 적응하고 생태환경에 적응한 적응 결과들을 지표상에 내보인다. 따라서 適應樣相은 지역의 生態的 條件과 지역사회의 특수한 社會的, 經濟的 實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최근 수십년간 연구지역의 촌락생활에 영향을 미쳐왔던 세 가지 요인들을 선별하였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탐색하였다.

첫째, 국가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정책적 요인은 촌락, 특히 화전농산지촌의 분포와 내적 변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66년 정부는 화전정리법을 제정하여 경사 20도 이상의 산지에 개간한 논과 밭은 모두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으로 환원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자연보호와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화전을 제한하였으며, 산간 중턱에 의파로 떨어진 가옥들을 모두 강제 철거하여 산아래쪽에 모여 살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촌락이 이른바 '獨家村'이다. 그러나 그 결과 농사지를 경지와 격리되거나 혹은 경지를 상실하여 많은 인구가 촌락을 떠나 타지로 유출됨으로써 실제로 화전농의 숫자는 격감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통폐합, 탄광업 통폐합 등 국가 정책을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 산지촌의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령 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한 산간 벽지의 초중학교의 폐교 및 그에 따른 인구유출, 탄광업 통폐합 정책에 의한 중소규모 탄광촌의 쇠퇴 및 그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와 정거시장의 폐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둘째, 경제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70-80년대의 한국 경제, 즉 서울 중심의 중앙 집중적 경제체제는 화전농의 존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연구지역의 경우, 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인구

가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그에 잇따른 농촌 소도읍의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경제적 체계 속의 하위 체계의 중심지인 이 지역의 소도읍들은 주변 지역에 대해 제대로 중심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역로상에 발생하여 국가정책과 경제의 執行地이자 정기시장이라는 민간 경제의 開市地 역할을 하였던 당시의 역원취락들이 오늘날의 그것들에 비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더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화전농의 형성 기원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의 사회적 특성은 정책적, 경제적 환경의 악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내구력을 지니기에는 부적합하였다. 다시 말해서 화전농 산지촌은 그 기원상 血緣的, 地緣的 凝集力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악화에 의해 쉽게 해체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요인들의 압박 속에서 연구지역의 산지촌은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지표상에 그 결과를 드러내었다. 그 양상은 지역별로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도 이하의 완경사 지역이 넓게 펼쳐져 분포하는 까닭에서, 국가의 화전농 정리 정책을 '禍'가 아닌 '得'으로 수용한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연구 지역의 북부에 해당하는 평창군, 대회면과 진부면, 강릉시 왕산면 고위 평탄면 일대가 그 곳이다. 둘째, 가파른 산악 지형이 분포함으로 인해 많은 화전농이 철거되거나 강제 이주된 지역을 들 수 있다. 고위 산간지역인 정선군 북평면, 북면 일대가 그 곳이다. 셋째, 전술한 두 지역의 산지촌이 대체로 화전농에 기원을 두고 있고 그 분포 패턴이 散村型임에 비해, 화전농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이 형성된 集村型 산지촌이 분포하는 지역을 들 수 있다. 태백산맥 등사면 일대의 이른바 급사면 산간지역의 산지촌이 그 곳이다. 이 세 개의 산지촌 유형은 대부분 주로 병자호란,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혹은 한국전쟁과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他地와 격리된 이 곳으로 피난해 들어왔다가 영구 정착한 산지촌들이다. 본 고에서는 이 세 지역에 관한 현 실태를 시·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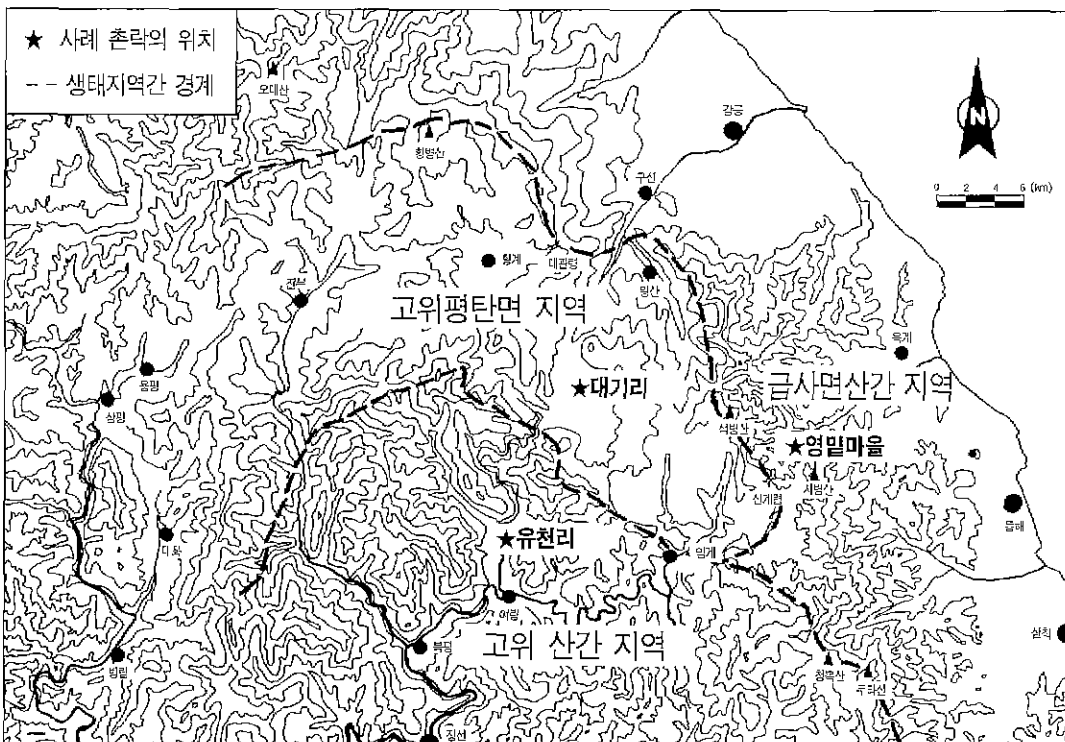


그림 4 생태지역의 구분¹³⁾ 및 사례 촌락의 위치

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첫번째 유형의 사례 지역으로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를, 둘째 유형으로는 정선군 북면 유천리와 북평면 숙암리를, 세번째 유형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영밀 마을)를 선정하였다.

1) 高位平坦面地域 山地村 : 江陵市 旺山面 大基里

대기리는 강릉시 왕산면 남서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강원도 평창군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정선군과 경계한다.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大基里, 高丹里, 松峴里를 포함하는 왕산면의 남서부 지역은 강릉시에 속한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이 지역은 태백산맥 동사면이 아닌 서사면에 포함되는 소규모 유역분지이다. 서사면의 평창군과 동사면의 강릉시 간의 행정 경계는 대기리 서쪽에 설정되어 있으나, 지형적인 분수계는 동쪽에 위치해 있다. 삼당령과 닭목재를 잇는 분수계가 대기리 동북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河系網은 서부에 위치한 대기리에서 일차 합류되고 동부의 고단리에서 이차 합류되며 정선군 임계면을 통과해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이 지역은 넓은 구릉성 산지가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고위평탄면 지역이다. '大基'라는 지명은 이 지역에 '큰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는데¹⁰⁾ 이것은 이 일대의 넓은 고위평탄면 지형경관에 대한 繪畫的 印象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보인다. 이 일대의 화전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20도가 안되기 때문에 1960년대의 화전 정리법의 제재를 가장 덜 받았다. 따라서 오늘날 경작되고 있는 경지는 대체로 과거의 화전에 그 기원을 둔다. 촌락들은 과거의 화전논의 분포를 그대로 받

영한다. 즉 밭으로 개간된 구릉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 분포하며 촌락은 경지의 한쪽 모퉁이에 立地하는데 이 점은 散村과 유사한 입지 패턴이다. 이 지역의 특징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인구학적 측면에 있다. 대기리는 모두 4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 넓은 면적의 지역이지만, 촌락이 散村型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자료에 근거할 때 대기 1-4리의 총 인구수는 1996년 현재 212가구 467명에 불과하다. 1992년 이후의 인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그 증감에 있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人口減少와 村落分布의 停滞性은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임계-강릉간 간선도로망이 지나가는 고단리 및 송현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격리된 대기리의 남녀간 性比와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고리나 송현리, 도마리에 비해 대기리 일대가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적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구학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겨울철 상주인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경지 개간이 가능한 늦봄-초가을에 상주하다가 매년 10월경에는 인접한 도시로 빠져나간다. 주로 강릉시에 거처를 마련하고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올라오는 공간적 이동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지역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이 일대의 일반적 특징으로 파악되며, 특히 대기리 중에서도 대기 3리 및 대기 4리의 안반덕 마을이나 고루포기 마을에서 겨울철 상주인구가 거의 없을 만큼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대기 3리와 4리는 五德(괴비데기, 안반데기, 장두데기, 황정데기, 황철데기)으

표 2 대기리의 인구 현황

마을	년도	가구	인구(1992년)			가구	인구(1995년)			가구	인구(1996년)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대기 1리		46	167	85	82	45	112	76	36	49	116	78	38
대기 2리		115	319	194	125	94	207	138	69	91	202	138	64
대기 3리		34	107	107	37	41	98	67	31	44	98	66	32
대기 4리		46	80	80	32	39	58	32	26	38	51	28	23

표 3. 대기리 인접 촌락의 인구 현황¹⁹⁾

마을 \ 년도	가구	인구(1992년)			가구	인구(1995년)			가구	인구(1996년)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고단리	193	660	370	290	184	591	294	297	173	555	274	281
송현리	48	199	90	109	52	148	81	67	50	144	77	67
도마리	214	760	378	382	199	624	317	307	217	633	321	312

로 알려진 지역으로서, 옛부터 만인의 피난지가 있다¹⁵⁾고 전해져 올 만큼 산간 외지에 격리된 원격 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인구가 이처럼 사계절 상주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한과 폭설이 지속되는 이 지역의 겨울철 기후 특성에 있다. 고문헌에서도 이 지역 일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대가 매우 높고 서늘하여. 매년 겨울 이 먼 눈이 두어 길이나 쌓였다가 다음 해 3월 이라 야 비로소 녹는다. 8월이면 서리가 내리므로 주 인은 오직 귀리를 심는다. ... 한낮인데도 溪亭엔 음기가 엉기고, 사시로 靑女(서리를 말함)가 위세를 부린다. 봄인데도 나무에 잎 없 음이 괴이하고 사람들이 '가지 끝엔 밤마다 얼 음이 언다'고 말한다.”¹⁶⁾

면담과정에서 안반덕 마을의 주민 중에는 겨울철 常住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기후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¹⁸⁾ 그는 바로 교육시설을 예로 들었다. 즉 기후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어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시설이 있다면 겨울에도 이곳에 상주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령의 자녀인 경우 학교가 있는 객지에서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나 초등학교 학령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수년전까지만 하여도 대기리 별마에 대기초등학교 분교, 한터 마을에 대기 분교, 그리고, '닭목이' 마을에 매지 분교가 있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두 곳의 분교는 모두 폐교되었다. 또한 대기초등학교도 인접한 왕산초등학교의 분교로 격하되었으며, 그나마 그것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¹⁹⁾ 이렇게 볼 때 교육제정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학교 통폐합 문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국가 전체에 걸쳐 관련 정책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안락한 상주처로서 가능했던 이 지역 촌락의 가옥들이 주민의 겨울철 이촌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여름철의 농막 역할만을 하는 수준으로 격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소득 규모의 특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빈곤한 산지촌'의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토지 이용은 상당히 粗放的으로 이루어진다. 20여년 전만 해도 집약적 농업을 대표하는 수도작이 곳곳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작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고냉지인 이곳에는 부적합하며, 收益상으로도 전작이 유리했던 까닭에 20여년 전 당시 밭으로 용도를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²⁰⁾ 겨울철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늦봄부터 초가을에 이르는 기간이 주경작 시기에 해당한다. 재배되는 작물 또한 특화되어 있다. 고랭지 기후 특성에 적합한 씨감자, 배추, 무와 몇해 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했다고 하는 구근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한 가지 작물을 연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령 전국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 대기리 씨감자의 경우, 품질 및 지력 유지를 위해 연작은 하지 않으며, 배추나 무 혹은 구근과 번갈아가며 재배한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1만평 내지 2만평은 경작하며, 많게는 3만 내지 5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²¹⁾ 이렇게 평균경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수준도 높아서, 연간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고소득을 올리는 능가도 있다.²²⁾ 농사는 여름 한철에 이루어지며, 겨울에는 혹한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하우스

제배시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주민들 대부분은 과거의 화전농의 후예들 또는 1960년대 초기에 국토개발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²⁹⁾ 소작제를 하지 않고 직접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도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다. 제배되는 농산물은 보통 중간 상인에게 팔때기로 넘겨지기 때문에 소득의 중간 손실이 많고 해마다 가격 등락의 폭도 심하다고 한다.³⁰⁾ 더욱이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이른바 한라산 감자와 양적, 질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씨감자 제배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 감자는 겨울철이 짧아 2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 출하되는 생산량이 증가됨으로써 감자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관리하에 농촌지도소나 농협 판매망을 통한 농민 직판체계의 실시를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임계, 여량, 대화, 진부 등 인접한 소규모 산지촌 중심지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유치하여 농민과 업주간의 직거래를 터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농가에서 트랙터와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30도 이상의 경사지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때문에 크게 경사진 경사지에는 보통 한우가 이용되고 있다.³¹⁾ 그러나 경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에 정부가 소요 경비의 일정 부분은 보조해 주기를 이곳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토지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또다른 하나는 土壤流失의 문제이다. 이 지역일대는 화강암이 심층 풍화된 고위평탄면이므로 화전에서 시작된 오늘날의 경지는 대부분의 구릉성 산지를 덮고 있다. 삼림은 거의 제거되어 있고, 이점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토양 침식과 유실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현재 이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는 퇴비 농법은 토양 유실의 억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곳곳에는 국지적으로 슬럼프(slump)나 슬라이드(slide) 같은 토양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생긴 窩地나 소규모 雨谷을 다시 경지로 환원시킬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식수(植樹)를 함으로써 일정한 배수로망은 확충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배수로망과 오늘날의 퇴비 농업이 결합된다면, 토양 유실의 방지는 물론이고 지표의 토양수 유지에도 바람직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 지역의 가옥은 散村型 분포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이른바 '촌락 공동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비록 하나의 마을 안에서도 가옥들은 평균 100-200 미터를 단위로 산포한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가 짧기 때문에 정확한 파종시기를 맞추는 일이 중요시되고, 농가들은 농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므로 품앗이와 같은 농업협동 체제가 발달해 있지 않다. 더불어 하나의 촌락에 살고 있다는 공동의 식이나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겨울철 이농현상은 농한기라 할지라도 주민들간의 접촉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郡이나 市 당국에서는 이 지역의 가옥 개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점차 폐교되고 있고, 교통로가 열악하며, 문화 및 복지 시설이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가옥개량, 교통로 개선, 교육시설 복원 및 확충, 문화복지 시설의 배치, 촌락 공동체 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협동조직 및 마을회관의 건립 등이 별개의 과제로서가 아니라 서로 연계성있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있던 50세 이후의 사람들은 다시 이 지역의 촌락에 還郷하여 상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³²⁾ 최근의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는 문제는 교통로 확포장,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의 확충이다.

2) 高位山間地域 山地村 : 旌善郡 北坪面 宿岩里, 北面 柳川里

이 지역은 세 개의 산지촌 유형중 화전 정리법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그것은 과거 이 지역의 화전의 대부분이 화전 정리법에서 정리 기준으로 삼았던 20도 이상의 경사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산간지역은 험하고 급경사를 나타낸다. 이점 외에 자연 경관상 전술한 고위 평탄면 산지촌과 다른 점은 계곡에 의한 하계땅이 다소 밀집된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곡 양안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하천 상류로 올라갈수록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거에 화전농들은 주로 계곡 양안에 거주하면서도 하천 주변의 땅은 좀처럼 경작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급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산간지역에 이주해 온 까닭에, 특별한 농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施肥의 문제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음이 틀림없으며, 이에 따라 시비 기술이 중요시되는 평지보다는 화전 경작이 노동량과 산출량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었다.²⁷⁾ 또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은 하천 유역에 거주하면서도 하천 연안의 평지보다는 깊숙한 산간에서 화전을 행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60년대의 화전법의 실시는 이 일대의 촌락의 시간적 변화를 공간적으로 차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이전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河川流域의 공간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천 유역의 평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 입지한 산지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산지촌에 비해 급격히 쇠퇴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술한 산지촌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정선군 북평면 일대이고, 후술한 산지촌의 분포지역은 정선군 북면 일대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사례로서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를, 후자의 사례로서는 정선군 북면 유천리를 각각 살펴 보았다.

첫째, 북평면 속암리는 조양강의 지류인 오대천 중상류에 위치한다. 이 곳은 계곡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가옥이 분포하고 있다. 오늘날 경작되고 있는 경지는 하천양안에 협소하게 발달한 하안단구상의 그것이 대부분이다. 100여년 전만 하여도 이곳에는 계곡마다 가옥들이 밀집해 있었다고 전한다.²⁸⁾ 오늘날 속암리의 가구는 계곡을 따라서 총 70여호 정도 분포하나, 60-70년 전에는 470여호나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난리를 피해, 혹은 보다 농사짓기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 주

변에서 모여들었다. 따라서 당시 촌락을 구성하던 주민들은 지연과 혈연이 서로 다른 성씨들로써 이 곳에서 各姓村을 형성하였다.

가옥은 주로 계곡 양안에 분포하였으며, 가까운 경우는 배후 산지에 그리고 먼 경우는 10리까지 떨어져 있는 깊숙한 山間高地帶에 火田터를 마련해 두고 왕래하였다. 그러나 이곳 역시 화전 정리법과 68년의 무장공비사건으로 인해 산간 고지의 화전농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고 고지대에서의 화전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 후 배후산지에 있던 화전터를 잃어버린 계곡 양안의 산지촌은 쇠퇴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무권리 입주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화전농들은 상당수 타지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당시 상황을 암시하는 경관들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데, 다른 아님이 일대 계곡 양안에 훗물스럽게 자리한 폐가들이다. 한편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들의 분포는 대부분 좁고 계곡을 따라 발달한 河岸段丘상에 위치한 것들이다. 그러나 하안단구의 폭과 너비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는 촌락의 규모는 매우 작으며, 계속적인 인구 감소는 그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지가 국한된 탓에 전술한 고위평탄면 산지촌에 비해 가옥들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밀집패턴을 보이나 집촌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이곳의 가옥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농촌지도소나 농협으로부터 새로운 농업과 재배 작물을 권유받기는 하나,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남아있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연령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 농업 형태를 회피한다.²⁹⁾ 특히 面소재지나 郡소재지에서 실시하는 농업 기술 및 판매망 설명회에 대한 참여 또한 소극적이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대부분 100여년 전의 그것과 변함없이 감자, 콩, 옥수수이다. 이들 작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지만, 이 지역이 하천상류인 탓에 자갈이 많고 토양이 척박해서 생산량이 적고 소득수준은 지극히 낮다.

이러한 촌락 경관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의지, 특히 서울 사람들에 의한 건축시설들이 이곳 저곳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을 고

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시설들의 용도는 식당, 여관, 주유소를 비롯한 피서객 접객시설이다. 최근 10-20년 사이에 이 일대의 계곡이 알려지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이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한다.³⁰⁾ 과거에 계곡마다 밀집하게 들어차 있던 가옥들을 대신해서 오늘날의 계곡에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장사전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 민박이나 소매상을 경영하는 가옥도 흔치 않다. 무엇보다도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교통의 편리와 의료시설을 가장 갈망하며, 여름철 피서객과 관련하여 정부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적당한 관심과 재정적 보조가 행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고위평탄면 산지촌의 경지화된 자연경관과는 달리 울창한 삼림과 수려한 계곡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시기에 화전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촌락이 입지한 일대에 평탄한 경지가 넓게 분포함으로써, 상술한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온 지역이 있다. 정선군 북면 유천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천리는 조양강의 또 다른 지류인 松川 하류에 위치한다. 이곳 역시 국가 혼란기에 촌락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화전법 이후 촌락이 쇠퇴과정에 들어선 점은 북평면 속암리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河岸段丘에 펼쳐진 넓은 평지는 화전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이들의 생계를 존속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마을은 약 400여년 전에 平山申氏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후 蔚珍張氏와 密陽朴氏가 이주해 왔으며 이 세 성씨를 중심으로 마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유천리를 일명 '申張朴' 마을이라고도 불리웠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화전을 경작했으며 소출량이 평지보다 나왔다고 한다. 水田農業을 시작한 것은 약 100여년전 津와 川防 기술이 보급되면서부터였다고 전하며,³¹⁾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火田農業과 水田農業이 병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전농업이 금지되면서 平野地帶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마을 중심부에는 성황당이 위치해 있고, 그곳은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는 마을 洞祭의

장이다. 등제는 음력 7월 보름에 행해지고 있으며 풍년과 마을의 安寧을 기원한다. 이같은 경관은 이 마을의 지연의식과 유대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경관들은 일반적으로 平野地帶의 농업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관이라는 점에서, 이 마을 하천 양안에 펼쳐진 평야지의 중요성과 집약적 노동 및 협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마을 뒤의 산사면에는 이 마을의 초기 정착자인 평산신씨 祭室이 있으며, 후손들의 혈연적 유대의식을 암시해주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성황당, 제실, 등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혈연적, 지연적, 사회적 관계는 이 촌락의 중요한 특징이며, 전술한 고위평탄면 산지촌의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한편, 이 마을 주민들 역시 다른 산지촌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교통문제와 의료시설을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특정한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들은 강릉까지 나가고 있었다. 인접한 북면 면소재지는 물론이고 군청 소재지에서도 그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면소재지의 역할은 관공서 소재지, 정기시장 개설지로서 기능하고 있을뿐, 복지시설이나 은행업무나 교통수단 발착지등 배후의 산지촌들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 경기를 대표하는 정기시장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 인접한 북평면 소재지의 정기시장이 2년 전에 閉市되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위기에 처해 있다

3) 急斜面山間地域 山地村 : 江陵市 玉溪面 산계리 영밀마을

태백산맥의 동사면은 많은 계곡들과 소규모 유역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백산맥 정상부가 평균 해발 1,000m 이상인 반면 동쪽으로 몇 십 킬로미터 안되는 곳에 바로 동해 바다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 동사면의 내륙부는 험준한 산간과 급사면, 계곡, 소규모 평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의 모든 계곡들에 촌락이 분포하고 있다. 가옥은 겨울철 급사면을 따라 하강하는 찬바람을 피해 가옥은 폐쇄형 구조를 보이며 대체로

햇볕이 잘 드는 '河川 北岸'에 입지해 있다. 이 일대 촌락의 기원 역시 혼란기의 피난처가 영구 정착된 경우가 많다. 이곳의 산지촌은 이른바 '해가 늦게 떠오르고 일찍 진다'는 전형적인 산지촌 경관을 연상케 한다. 일반적으로 들보다는 산에 의지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의 영밀 마을을 조사하였다. '영밀'이라는 지명은 이 마을이 동해안의 강릉이나 삼척을 태백산맥 서서면의 입계 및 정선 지방과 이어주던 '산계령 아래에' 입지해 있는데서 연유한다. 영밀 마을의 남서부에는 태백산맥의 주요 봉우리인 紫屏山과 石屏山을 잇는 산릉이 屏風처럼 막고 있다. 산계령을 통해서 서쪽의 입계 및 정선과 이어지는 소로가 있으나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동쪽으로는 珠樹川을 따라서 단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 의해 옥계면 소재지로 연결되고 다시 강릉 및 동해시로 통한다. 산계령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영밀 마을은 하나의 산지촌으로서 전술한 고위 평탄면 산지촌 및 고위 산간지역 산지촌과 유사점도 있으나 몇몇 대조를 이루는 측면도 있다.

영밀 마을의 첫번째 특징은 우선 촌락의 형성이 화전농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형적으로도 이 지역은 화전에 적합하지 않다. 이곳은 산지가 험란하고 사면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예부터 隔世之處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마을을 형성한 초기 정착자는 대체로 난리를 피해 들어온 피난민들이며, 오늘날 그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대를 이어 오면서 주로 약초와 산나물 채취 등 산지 부산물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계곡 양안의 좁은 완사면은 밭이나 논으로 개간되기도 하였으며, 그곳에서 산지 부산물 중 일부를 作物化하여 정기적으로 매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논은 경우, 골짜기 깊숙한 곳에는 수십 마지가 개간되어 있으나 수년 전부터는 거의 경작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넓은 경지를 경작할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며 투입량과 산출량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깊숙한 골짜기까지 농기계가 왕래할 수 있도록 농로를 개설 및 확장하는 일과, 수확된 농산물 운반을 위한 기계화 지원, 집하장 설치 등

은 이 마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산지부산물을 중심으로 하던 과거의 생활 방식은 오늘날에도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변화한 것은 예전에 비해 많은 인구가 유출되어 촌락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약 30여년 전에는 가구가 약 30여호 있었으나 현재는 12가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산골짜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廢家가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空家도 종종 발견된다. 가족의 분포는 계곡이 넓어지는 곳에서 다소 집촌 패턴을 나타내지만, 공동체 의식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가령, 농업 경영이 가족 노동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을 진입로 개설과 같은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셋째, 소득원이 발작물 위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주 소득원은 도라지, 시호, 콩 등의 발작물 위주이며, 수전 농업은 자급자족의 수준에서 그친다. 경작 기간도 봄과 여름에 한정되며 겨울에는 묵혀둔다. 겨울철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재배 농가는 거의 없다. 간혹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약초, 산시호로 일정 소득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수년 전, 관할 행정 관청에서는 소득 향상의 일환으로 송어 양식업을 이들 산골 마을에 소개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더욱이 송어 비설물로 인한 계곡의 오염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영밀 마을의 경우에도 이 마을에서 송어 양식업이 행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계곡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양식업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식업은 일정한 자본과 경험, 지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산지촌 주민들은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의 소득이 거의 없다. 여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일정 시간 보낸후, 귀향전에 동해안의 이같은 산간 계곡을 찾아오는데, 이러한 공간 이동 행태는 이 일대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패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박이나

편의 시설을 요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대부분은 가옥구조가 적절치 않고 공공 화장실 및 상하수도 시설의 취약성을 예로 들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해수욕장으로 특화된 이 지방의 특색 때문에, 태백산맥 동사면의 이들 산골 마을들은 행정 관청의 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 같다.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에서는 재정 보조 및 편의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해수욕장에 인접한 주요 어촌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과 계곡간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관광객의 공간 행태를 고려한다면, 어촌과 계곡의 산지촌을 연결하는 觀光軸의 개발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삼척으로부터 동해시에 이르는 동사면 계곡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석회암 동굴과 기암, 수려한 계곡, 전통적 민가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해수욕장과의 연계망 도로가 잘 개발되어 있지 못해서 관광객 유치에 난점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로는 도로망 확장과 포장, 공공 시설 설비, 가옥 구조의 보존을 위한 재정적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 방식도 다소 획일적인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 지역을 세분하고 각각의 생활방식, 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을 기술하고 이들의 상호 관계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산지촌이라 하여도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 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 하면서 산지촌의 분포 지역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 경관, 사면 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 될 수 있었다. 高位平坦地域, 高位山間地域, 그리고 急斜面山間地域이 그것이다. 고위평탄면 지역에는 강릉시 왕산면, 평창군 진부면과 대화면 일대가, 고위산간 지역에는 정선군 임계면과 북면 일대가, 그리고 급사면산간 지역에는 태백산맥 동사면의 강릉시 옥계면 일대가 해당된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본고에 서는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 해 본 후, 자연 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 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고위평탄면지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화전지대였다. 경상도가 완만한 고위평탄면 지형의 생태 환경은 화전에 매우 유리 했던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경지는 그러한 화전에 기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곳의 산지촌의 형성 배경도 화전과 관계가 깊다. 산지촌의 분포 패턴은 散村 패턴이며, 경지 면적은 평균 2-3만평 정도로서 상당히 큰 편이다. 토지 이용은 조방적이며 무, 배추, 감자 등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

표 4. 생태지역별 주요 특징의 비교

구분	생태지역	고위평탄면 지역	고위산간 지역	급사면산간 지역
지형 및 자연경관		高位 平坦面	高位 山間	急斜面 山間
취락기원의 배경		역원취락, 화전취락	역원취락, 화전취락	피난취락
촌락의 분포패턴		散村 패턴	散村, 集村의 혼재	集村
경제적 기반		상품작물의 대규모 경작	충적지에서의 논농사, 관광 수익	산지부산물
경지 규모/생활		大規模 / 商業的	中規模 / 自足的	小規模 / 零細的
영농방식		기계식 농업	자급자족적 상호부조	독립적
공동체 의식		미약한 편	혈연적, 지연적 유대 강함	해체 과정에서
폐가 및 공가		겨울철 限時的 空家	사계절 常住	廢家 증가 추세
환경 문제		지형 훼손, 토양 유실 및 오염	보존 양호	휴한지 방치

배한다. 고위평탄면 지역은 겨울 기온이 매우 낮고 강설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空家가 많다. 따라서 산지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약한 편이다. 원만하고 광활한 경작지는 이 지역 산지촌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나친 경지 개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지형과 토양의 훼손이 심각해질 우려도 갖고 있다.

둘째, 고위산간지역 역시 화전 개간으로부터 산지촌의 형성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국가의 화전농 정리 정책은 이 지역에 많은 廢家를 남겼으며, 현재 산지촌은 몇몇 주요 하곡의 충적지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분포한다. 따라서 촌락의 분포는 화전농에 기원을 두는 전통적인 가옥의 경우에는 散村 패턴을 그리고 정부의 화전농 정책에 따라 환경에 새롭게 적응한 가옥의 경우는 集村의 패턴을 보인다. 충적지는 논농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화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화전지대였던 배후산지는 이제는 더 이상 경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삼림지화되었다. 우거진 삼림과 깊은 골짜기는 천연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 고위평탄면지역과는 달리 이 곳의 거주민들은 혈연 집단인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이들은 논농사라는 생계 방식을 영위하면서 지연집단화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토지이용은 집약적이며 벼농사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고위평탄면 지역의 그것과 대조되는 점이 많다.

셋째, 전술한 두 지역의 경지와 산지촌이 대체로 화전농에 기원을 두고 있고 그 분포 패턴이 散村型임에 비해, 화전농과는 관계 없이 형성된 集村型 산지촌이 분포하는 지역을 들 수 있다. 태백산지 동사면 일대의 이른바 급사면 산간 지역의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 곳은 산지가 험란하고 사면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난리를 피해 들어온 피난민들에 의해 산지촌이 형성된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다. 좁고 깊은 골짜기로 대표되는 이 곳의 자연환경은 경지에 기초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데 적합치 않았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주로 산지 부산물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앞의 두 개 생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폐가와 공가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 동굴과 기암 절벽은 주변의 동해안 관광지와 연계될 때 이 지역 산지촌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이 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각 생태지역별 자연 경관 및 생활 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 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註

- 1) 대표적인 것으로 Peattie(1936), Matznetter(1958), Troll(1966), Uhlig(1971), Loehr(1976), Jentsch(1977), Lichtenberger(1979), Groetzbach(198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Groetzbach, E. F., 1988). 이들은 山地地畧을 인간의 거주지로서 인식하고,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등 세계의 주요 고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들이 서로 유사함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의 취락의 농업 형태, 언어와 종교, 문화, 자연 환경의 변형, 생태지대의 구분 등에 관심을 가졌다.
- 2) 여기서 環境이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갈수록, 그리고 특정한 시기의 경우 도시보다는 촌락 지역일수록 자연 환경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사회 환경의 그것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지촌에 관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환경 개념은 대체로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3) 景觀生態學은 1938년 地理學者 Carl Troll에 의해 학문적 용어로 제안된 개념이다. 그는 항공 사진을 판독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항공 사진에 나타나는 景觀像이 장소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景觀像을 통해 그 지역을 설명하고

- 자 시도하였다.
- 4) 독일어인 'landschaftsoecologie'가 영어로 번역 될 때 흔히 'landscape ecology'로 쓰이고 있으나 이 같은 번역에는 異論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독일어인 'landschaft'는 '地域'(region)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어의 'landscape'는 可視的 景觀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Harshorne, 1939).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칼 트롤은 'landschaftsoecologie'의 국제적인 표현으로서 'Geocologie'(Geocology)를 제안한 바 있다(Troll, 1968, 1970, 1971). 그가 제안한 'Geocologie'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地域生態學'에 가까운 뜻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학계, 조경학계, 건축학계에서는 景觀生態學(landscape ecology)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일단은 이 표현에 따르기로 하지만, 그 의미는 '지역생태계'와 가까움을 밝혀 둔다.
 - 5) Bailey, R. G., 1988, *Description of the ecoregions of the United States*, 2nd ed.,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 6) 민족문화추진회역, 1969, 新增東國輿地勝覽, V, 477.
 - 7) 일제시대 지형도에는 雙鷄嶺이라 표기되어 있음.
 - 8) 제보 : 강릉시 옥계면 신계리 영밀마을 方吉東翁(73세).
 - 9) 정선군 북평면 북평장은 약 2년 전부터 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탄광사업 통합 정책에 의해 이 지역 주변의 촌락의 인구규모 즉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 10) 臨溪 정기시장 開市日에 상인 및 소비자들과의 면담 결과임.
 - 11) 민족문화추진회 역, 1969, 新增東國輿地勝覽, V, 480.
 - 12)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노도양 역, 1987. 택리지, 서울 : 진명출판사)
 - 13) 세 개의 생태지역은 등고선의 간격과 밀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쉽게 구별된다. 등고선의 간격과 밀도는 생태지역의 사면 경사도와 지형 조건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에 표시된 등고선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간격으로 그려진 것이다.
 - 14) 왕산면사무소, 1996, 旺山面誌, 125.
 - 15) 왕산면사무소, 1996, 旺山面誌, 127.
 - 16) 민족문화추진회역, 1969, 新增東國輿地勝覽, V, 499.
 - 17) 고단리는 고단 1~3리, 도마리는 도마 1~2리를 합산한 수치임.
 - 18) 1996년 11월 대기 4리 안반덕 주민과의 면담.
 - 19) 제보 : 왕산면장 권혁문씨.
 - 20) 제보 : 송현리 이장.
 - 21) 제보 : 왕산면장 권혁문씨.
 - 22) 제보 : 왕산면장 권혁문씨.
 - 23) 제보 : 대기 4리 주민.
 - 24) 제보 : 대기 4리 안반덕 마을 주민.
 - 25) 대관령 일대 산지촌의 한우 중 일부는 겨울이면 강릉 시내에서 위탁사육된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인 왕산면 대기 4리 마을의 농사일을 돕던 한우 20마리는 최근 모두 시내로 이동했다. 이 중 일부는 주인과 떨어져 남의 집에서 위탁관리되고 있다. 대기 4리 마을의 한우는 가을걷이가 끝나는 10월말부터 위탁관리에 들어가고 위탁비는 매달 마리당 10만원 정도이다.
 - 26) 제보 : 왕산면장 권혁문씨.
 - 27) 제보 : 정선군 북면 유천리 申元敦氏(70세).
 - 28) 제보 : 속암리 촌노(75세).
 - 29) 제보 : 속암리 촌노(75세).
 - 30) 제보 :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촌노(75세).
 - 31) 제보 : 정선군 북면 유천리 신원교씨(70세).

文 獻

강대현, 1966, "대관령부근의 산촌의 입지와 형태", *지산선생화갑기념논문집*, 9-20.

강릉시, 1992, 명주연감.

강석오, 1971, 신한국지리. 새글사.

강원도, 1976, 화진정리사.

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요람.

김 인, 1987,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연구 시론", *지리학논총*, 14, 283-290.

김범철 · 이승환 역, 1996,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따님.

김의원, 1983, *한국 국토개발사 연구*, 서울: 대학도서.

-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 연구,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일기·오경섭·이민부 외, 1997,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과 실태조사 연구, 산림청.
- 김일기·이민부 외, 1998,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인 보전방안 연구, 산림청.
- 김형국, 1996, 국토개발의 이론 연구, 서울: 박영사.
- 류제현, 1994, 한국근대화와 역사지리학: 호남평야,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옥표, 1994,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 변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족문화추진회 역, 1969, 新增東國輿地勝覽.
- 박명규 외, 1993, 우리의 산촌: 산속 마을의 새로운 진로, 서울: 일신사.
- 박태순, 1989, 국토와 민중, 서울: 한길사.
- 신중성·윤진숙, 1982, "평창 산촌가옥의 변모", 지리학총, 10, 252-262.
- 오홍석, 1984,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9, 141-164.
- _____, 1989, 취락지리학, 서울: 교학연구사.
- 육한석, 1985, "산촌연구의 동향과 방법론", 지리학, 32, 111-127.
- _____, 1994, 향촌의 문화와 사회 변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유홍준, 199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광원, 1987, "산지 및 산지농업의 개념과 새로운 시각의 정립: 산지농업의 문제상황과 국토 공간상의 위치", 농촌경제, 10(4), 77-92.
- _____, 1980, "산촌농업발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향", 농촌경제, 3(3), 96-106.
- _____, 1986, "산촌의 문제상황과 국토공간상의 위치: 산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농촌경제, 9(4), 101-112.
- 이문중, 1987, 태안반도의 산촌 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6,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민부, 1994,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연구", 새마을연구, 3, 103-116.
- 이중환(노도양 역), 1987, 택리지, 서울: 진명출판사.
- 장우환·최규섭, 1989, "산촌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2(4), 121-135.
- 전종한, 1993, "촌락의 공간적 확대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5, 53-63.
- 정선군, 1991, 정선연감.
- 조동규, 1970, "고랭지 토지이용의 변모: 대관령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논문집, 8, 345-360.
- _____, 1969, "대관령 지역에 있어서 높고 한랭한 지역의 운작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논문집, 6, 141-199.
- _____, 1966, "한국의 화전분포", 지리학, 2, 57-65.
- 최기엽, 1986, 한국 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 연구보고, 14, 경희대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정호(편), 1993,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사.
- 평창군, 1979, 평창군지.
-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1, 한국사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상복, 1964, "한국 산촌의 연구", 사회학논총, 1, 133-169.
- _____, 1966, "한국 산촌주민의 의식과 신앙", 한국사학회, 2, 84-100.
- 半田良, 1981, "山村問題研究領域と視覚", 林業經濟, 398, 東京: 林業經濟研究所, 15-19.
- 北村昌美, 1987, "山村の復権を目指して", 林業經濟, 465, 東京: 林業經濟研究所, 15-21.
- 山岸清隆, 1983, "山村振興に關する一試論", 林業經濟, 419, 東京: 林業經濟研究所, 1-8.
- Bailey, R. G., 1988, *Description of the ecoregions of the United states 2nd ed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 Baker, A. R. H. et al.(eds), 1982, *Period and Place: research method in historical ge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ows, H. H., 1923, *Geography as Human Ecology*, A.A.G., 13, 1-14.
- Bilsky, L. J., 1980, *Historical Ecology*, London: Kennikat Press.
- Gregory, D. et al.(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Hampshire: Macmillan Publishers Ltd..

- Groetzbach, E. F., 1988, High Mountains as Human Habitat, in *Human Impact on Mountains*, edited by Nigel J. R. Allan et al., Totow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4-35.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A.A.G..(한국지리연구회 옮김, 1998, 지리학의 본질, 민음사)
- Netting, R. M., 1986, *Cultural Ecology*, Prospect Heights: Waveland Press, Inc..
- Rogers, E. M. et al., 1988, *Social Change in Rural Societies*, New Jersey: Prentice Hall.
- Tricart, J. et al., 1992, *Ecogeography and Rural Management*, Harlow: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Troll, C., 1988, Comparative Geography of the High Mountains of the World in the View of Landscape Ecology, in *Human Impact on Mountains*, edited by Nigel J. R. Allan et al., Totow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36-56.
- , 1968, Landschaftsoelologie, in *Pflanzensoziologie und Landschaftsoecologie*, Den Haag: Mouton, 1-21
- , 1971, Landschaftsoelologie(Geoecology) and Biogeocoenology - A terminological Study, *Geoforum*, 8, 43-46.
- , 1970, Landschaftsoelologie(Geoecology) and Biogeocoenology - Eine terminologische Studie, *Revue Roumaine Geologie, Geophysique, Geographie, Serie de Geographie*, 14, 9-18.